

# 최태원 “SK 합병, 큰 시너지 낼 것”

〈대한상의 회장〉

## 대한상의 제주포럼

반도체 사업 정부 지원 강조  
“팹 하나 건설하는데 20조 소액  
세제 혜택만으로 감당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첨단 반도체 팹(생산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20조 원가량이 든다”며 “세제 혜택 형태만으로는 지금 상황이 잘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이어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인공지능(AI) 관련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AI 시대에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거액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 반도체 사업 지원과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은 세계 지원 위주다. HBM도 전기가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급감)처럼 수요가 언제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HBM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AI칩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관련 제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걸 연구개발(R&D)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적도를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의

를 요구해 우리는 설비투자를 더해서 공장을 늘려 지어야 한다”며 “그런데 공장 하나 짓는데 대충 계산해도 2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HBM의 경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래야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장을 만들지 않나.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뭘 해줘야 한다. 그걸 안 하고 ‘알아서 혼자 해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와 E&S 합병 관련 질문에 “AI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두 가지가 합쳐지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한 건 AI쪽”이라며 “AI에도 지금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한 쪽은 배터리 등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수소나 전기에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 한다

면 그것도 상당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포함 AI와 관계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를 잘 이해하는 ‘AI 전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빅테크, 또는 많은 AI와 관계된 곳들이 우리나라를 택하지 않고 공동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데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AI 데이터센터부터 AI에 관계된 인프라 구조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AI를 이해하고 사업할 수 있는, 저는 그걸 ‘AI 워리어(전사)’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 관련 질문에 “누가 대통령에 되든지 중국에 대한 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반면 환경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경제를 부스트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다”며 “반면 경제에서는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 시 미 정부 반도체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AI에 관계된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크고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그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직 완전히 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안 준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

## ‘오픈카’ 로망에 성능·디자인



###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카브리올레

오픈 톱 드라이빙에 기능 최적화  
고속 주행시 머리 위로 공기막 형성

유럽에서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오픈카를 즐긴다.

‘로망’을 상징하는 오픈카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즐기는 이들의 동반자이다. 파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해안 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때문에 자유와 일탈, 여유를 담은 영화에는 오픈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 16~17일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시장에 지난 6월 출시한 2도어 오픈톱 모델 CLE 450 카브리올레를 타고 도심과 해안도로를 즐길 수 있는 부산 일대를 주행했다. 시승은 부산 빌라주드 아난티를 출발해 울산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을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우선 외관은 긴 후드와 전장 및 휠베이스, 낮은 전고, 짧은 오버행으로 완성된 스포티한 비율과 측면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 등을 통해 CLE 카브리올레만의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실제 이전 모델인 E클래스 450 카브리올레보다 길이는 5mm 늘었고, 전고는 5mm 낮아졌

으며, 휠베이스는 10mm 늘었다. 덕분에 2열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했다.

최고 60km/h의 주행 중에도 20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해 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오픈했다. 특히 오픈 톱 드라이빙에 모든 기능이 맞춰졌다. 암레스 콘솔박스 앞에 차량을 개폐하거나 에어캡을 설정하는 버튼을 적용해 주행 중에도 부담없이 컨트롤 할 수 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속구간과 해안도로 주행시 운몸으로 전해지는 속도감은 매력적이다. 또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81 ps, 최대 토크 51 kgf·m의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 가속페달을 밟는만큼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했다. 낮은 전고로 도로에 붙어 있는 느낌은 안정감을 높였고 실제 코너 구간에서 하체 안정성과 코너 주행 응답력은 뛰어났다. 다만 제로백이 7.9초인데 초반 가속력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오픈 톱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해도 에어캡이 탑승자 머리 위로 공기막을 형성해 외풍을 최소화해 머리카락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오픈카 주행시 디스플레이 빛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각도(15~40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는 11.2km/L(복합연비 10.7km/L)로 나쁘지 않았다.

/양성운 기자

## HD현대-지멘스DIWS, ‘디지털 제조혁신’ 힘 모은다

기술협의회 개최... 주요경영진 참석

HD현대와 지멘스 DIWS 경영진이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제조혁신’ 개발에 힘을 합친다.

21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지멘스 DIWS와 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안오민 HD현대상호 전무, 지멘스 DISW 토니 헤멜겐 CEO 등 양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 그룹은 ▲HD현대미포의 ‘소조로봇 시뮬레이션’, ‘판넬라인 생산 최적화’ ▲HD현대상호의 ‘지멘스 마린 플랫폼’, ‘산업용 메타버스(Teamcenter X) 기반 설계자료 시스템’ 등 공동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D현대미포 김형관 사장(왼쪽부터), 지멘스 DISW 토니 헤멜겐 CEO,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는 지능형 자율운행 조선소 구현을 위해 2022년부터 지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기술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2025년까지 다양한 로봇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지멘스와 함께 가상공장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연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제조혁신을 업계 최초로 이룬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반 상선, 합정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고려아연, 환경투자비 3.2배 ‘경총’

최윤범 회장, 친환경 기업 전환 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환경투자액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고려아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가 집행한 환경투자비는 396억원이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년 123억원과 비교하면 3.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고려아연의 환경투자비는 2021년 약 114억원에서 지속해 늘리고 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경영본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향한 투자와 노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



이자 우리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이라며 “비철금속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신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저탄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탄소 감축 노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전체 환경투자액 중 약 70%(278억원)가량은 대기 개선에 사용했다. 이어 수질 개선에 109억원, 화학물질 관련에 9억원 등을 각각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투자 집행량을 통해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 측정기 8개와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잡액탱크 등을 설치하고 있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녹색 제련소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